

제목:

(아직 못지었습니다..)

직립하지 않는 넝쿨 식물. 누워있으니 우린 발 밑에서

만났다.

city

garden-

bed

몸이 큰 누가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해.

21 세기의 실비아 플라스가 눕고 싶은 침대인가? 앗. 저기 누우면 바로 *unpetal* 행.

처음엔 징그럽다고 생각했어

초록색 식물이 징그럽기도 쉽지 않지

엽록소는 광합성에 제일루 필요없는 색이잖아.

앗. 가시도 있다던데. 갈등이 있다던데? 갈등이라던데?

누가 당차게 발을 썩 넣으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데. 더 재수없으면

뱀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.

뱅뱅 돌며 오르지 않으면 안돼. 태양도 물도 진땅도 불필요.

1만 있다면 타 오르다 1만 있다면 손잡다